갯벌·야생화·생약초·야생동물·뱀 자원 특화

전남도 '5대 생태공원' 본격 조성

전남도가 추진중인 '5대 생태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갯벌과 야생화, 생약초, 야생동물, 뱀 등 5대 자원을 특화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5대 생태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13일 영암군 삼호면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갯벌도립공원'은 다양한 생물군과 게르마늄 함유량이 많아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무안 현경·해제 지역 35.6㎞와 신안 증도지역 3㎞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섬 개발과 연계해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야생화 생태공원'은 구례군 산동·광의면 일대 330㏊에 오는 201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야생화를 테마로 생태 숲과 자생식물단지, 야생화·철쭉단지, 산촌휴양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생약초 공원'은 장흥군 관산·장흥읍, 안양면 일원 36만㎡에 오는 2011년까지 124억 원을 투자해 사상의학 체험랜드, 생태체험공원, 민속촌, 생약초 제조 및 가공단지, 한방산업진흥원, 아토피 치료센터 등을 건립하게 된다.

'야생동물 복원공원'은 신안군 도초도와 상사치도 2천178만㎡에 4천660억 원을 들여 호랑이, 늑대 등 멸종위기 동물복원 공원, 사파리 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뱀생태공원'은 함평군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입구 165만㎡에 오는 2010년까지 뱀생태공원, 공연·전시장, 파충류공원 등을 조성해 자연학습장 및 생태체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인근에 뱀독 연구소를 유치해 기능성 약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가사도우미 확대해달라"

여성 이장들 정책간담회서

해남지역 여성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발전을 다짐했다.

지난 10일 해남 옥천농협에서는 여성이장 26명과 농림부 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고 농업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성이장들은 이날 ▲고령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농민 관련단체 여성 임원 할당제 ▲학교 급식 원산지 표시 의무제 등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특히 여성이장들은 농촌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화농업이 부족하다며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농림부 여성정책과 김미숙 과장은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에 농촌마을 여성이장 30% 이상 확대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성이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지역에는 523개 마을 중 여성이장이 3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장 마을에는 연간 2천만원의 특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직원 1명이 복지시설 141곳 관리

광산 사회복지 인력 부족

동구 44개소·남구 71개소와 큰 차이

광산지역 사회복지 실무인력이 크게 부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직원 1명이 171곳의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광주지역 구청 가운데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관리 시설수는 동구와 남구가 각각 42개소와 54개소이며 서구 77개소, 북구 109개 소 등 광산지역이 가장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의회 박석원 의원은 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액이 지난 2003년 11억8천700만원에서 올해 515억8천400만원으로 300%가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련업무는 폭증하고 있으나 인력은 2003년 52명에서 현재 6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광산구 보육업무 담당직원은 2명으로 동구 1명, 서구 3명, 남구 2명, 북구 3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1인당 관리 시설수가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팀제 조직개편시 9개 동에 담당을 신설하고 행정직 3명의 정원을 사회복지직과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등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우리마을엔 '실종 犬'이 없어요"

해남경찰 김기병 순경 제안으로

개 다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표시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여름철 '개 실종' 사건이 해결됐다.

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 김기병(32) 순경은 복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개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주민들을 보고 '묘책'을 생각해냈다.

김 순경은 '훔친 개'라는 것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개 도둑들이 쉽게 주민들이 키우는 개를 몰래 데려갈 수 없다고 보고 관내 주민들에게 한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키우는 개의 다리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표시를 한 다음 개 사진을 찍고 이름을 기록하는 등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자고 했다.

김 순경은 또 주민들에게 개 장수가 오면 일단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도록 부탁한 뒤 같은 차량이 발견되면 검문검색을 해 스프레이가 묻어있거나 사진과 비슷한 모양의 개가 발견되면 개 주인에게 확인하고 훔쳐간 개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런 '묘책' 덕분에 화산 읍과 인근 지역에서는 개 도둑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올 여름에는 개 실종 사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김 순경은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여름철이면 사라져 부모님이 속상해 하던 기억이 떠올라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효과가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강진군청 민원실 '친절해졌다' 강진군청 민원실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자세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이 올 상반기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강진군청 민원실 전경. 〈강진군 제공〉

수상레저 업체 직원 익사사고 예방 교육

장성경찰 삼계지구대

장성경찰서(서장 이영) 삼계지구대는 지난 10일 삼서면 합동저수지에서 주민과 수상레저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익사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트스키·바나나 보트 등 수상 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병만 지구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안전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화순 옥수수 가공공장 오픈

도암면에 9억 들여 최신시설 갖춰 … 부산물 이용 퇴비생산도

화순군에 최첨단 옥수수 가공공장이 문을 연다.

화순군은 13일 도암면 옥수수 재배단지에서 600여㎡ 규모의 옥수수 가공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군은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전략품목인 찰옥수수를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옥수수 가공공장은 전국 최초로 세척과 선별, 세척, 냉각, 진공포장, 가압살균 설비 등 전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풋옥수수와 세척옥수수, 버터옥수수 등이며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퇴비도 생산된다.

군은 유통전문가를 영입해 농협물류센터와 대형할인점, 학교급식 납품 등 유통망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농수산물 고객관계 관리

진도군 첫 전문인력양성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 고객관계관리(CRM)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CRM은 마케팅을 농수산물 유통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선진 기업 마케팅 방법이다.

CRM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농협 진도군지부에서 매주 5회 4시간씩 실시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문의 (061-544-3920).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새얼굴

"경제살리기·투자유치 적극 노력"

임 태 영 고흥 부군수

"고흥을 잘 사는 고장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임태영(54) 고흥 부군수는 "민선 4기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등 고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광산 출신인 임 부군수는 지난 1978년 공직생활을 시작, 순천·광양시 주택과장, 전남도 개발건축·행복마을과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영순(50)씨와 1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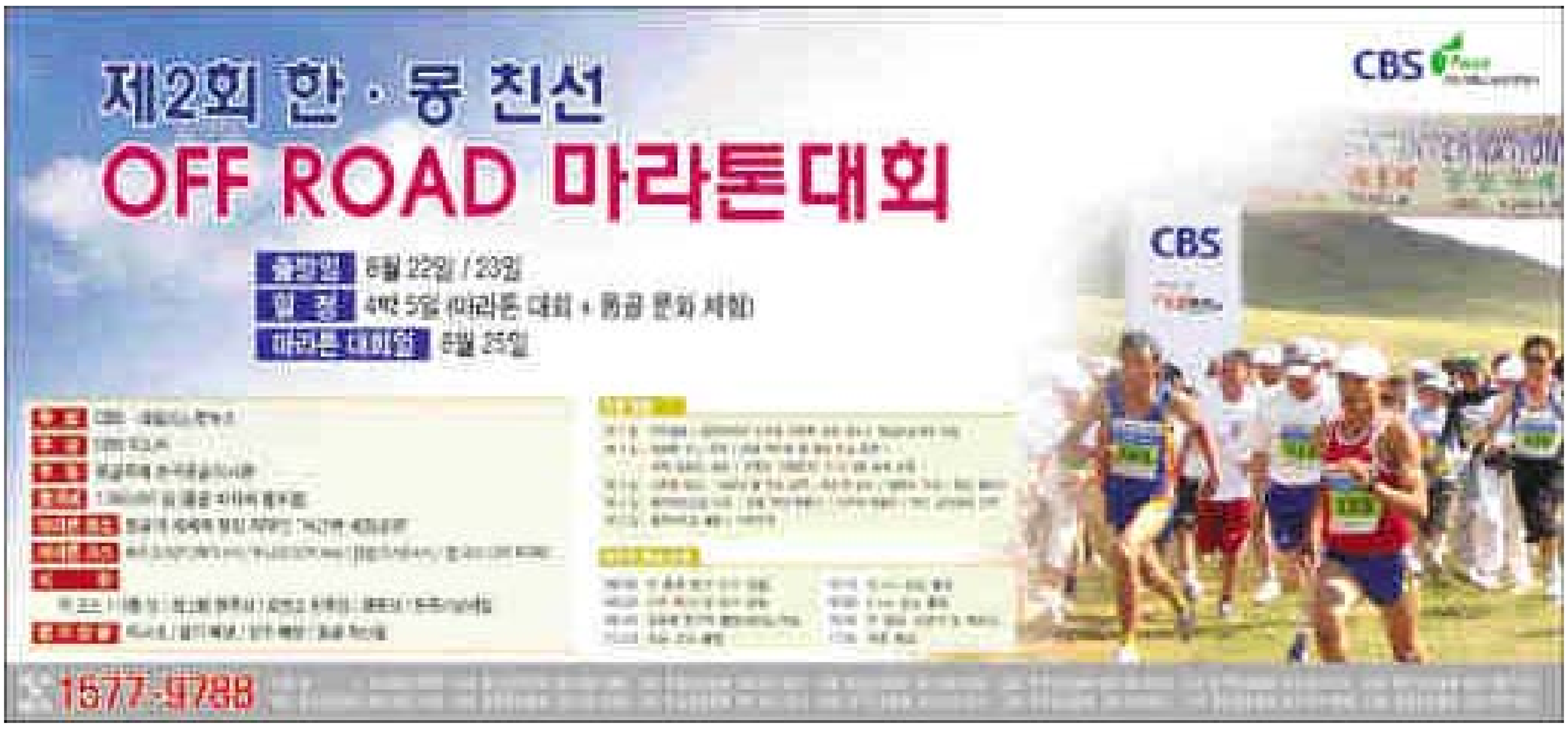
/고흥=대성수기자 dss@

"정확한 측량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최 광 식 지적공사 곡성군지사장

"곡성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최광식(50) 대한지적공사 곡성군지사장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장은 장흥 출신으로 광주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광주 동·남구 차장, 광주·전남본부 사업팀 차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덕희씨와 1남1녀가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